

# “공천 받아도 끝 아니다”...현직 변수에 선거판 흔들

### 6·3 지선 현장을 가다 <2> 강진·진도군수

#### 강진, 차영수·김보미 경선...강진원 출마시 본선 재편 진도, 김인정·이재각 맞대결...무소속 김희수와 경쟁

강진과 진도는 현직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공동된 상황 속에 6·3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다. 강진은 강진원 군수가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권 정치 징계를 받아 경선에서 배제됐고, 진도는 김희수 군수가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그동안 민주당 공천이 곧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지던 흐름과 달리, 이번에는 현직 단체장의 무소속, 다른 정당 출마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판세 전반이 다시 짜이는 양상이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되는 두 지역의 흐름을 짚어본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남 강진과 진도는 선거 구도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두 지역 모두 현직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주당 경선과 본선 구도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와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던 기존 흐름이 깨지면서, 판세는 초반부터 예측이 쉽지 않다.

강진군수 선거는 현직 배제 이후 민주당 내부 경쟁이 전면이 부각됐다. 경선은 차영수 전남도위원과 김보미 강진군의원

간 2파전으로 압축됐다. 두 후보 모두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본선까지 확장성을 갖느냐'를 두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차영수 후보는 재선 도의원과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재정과 행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도비 확보와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해온 이력을 앞세워, 지역 현안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행력을 내세운다.

'강진 예산 1조원 시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국·도비 확보 확대를 통한 재정 기반 강화,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했다.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예산 구조를 어떻게 키우고 배분할 것인지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어가겠다는 접근이 특징이다.

김보미 후보는 세대 교체와 정치 신신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30대 여성, 전국 최연소 기초의

회 의장이라는 상징성을 기반으로 외부 자원 유입과 지역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업·복지·관광·정주환경 개선을 축으로 한 5대 비전을 제시했고, 청년·여성 가산점이 적용될 경우 경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직력과 경험을 앞세운 차후보와 변화와 상징성을 앞세운 김 후보 간 대비가 뚜렷한 구도다.

### 강진군



강진원 김보미 차영수

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4일 해남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인구소멸 대응 방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발언에 비판이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군수를 제명했다.

김 군수는 군수 도선 네 번째 만에 2022년 무소속으로 당선된 인물로, 36년간 진도군청에서 근무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제명 이후 무소속으로 재선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처럼 현직이 민주당을 벗어난 상황에서 선거의 중심축은 자연스럽게 민주당 후보 경쟁으로 이동했다. 현재 공천 경쟁은 김인정 전남도위원과 이재각 전

### 진도군



김희수 김인정 이재각

북지방병무청장 간 맞대결로 진행 중이다.

김인정 후보는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군민의 삶이 더 풍요로운 진도'를 내걸고 복지, 산업, 관광, 인프라를 묶은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돌봄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비롯해 스마트 농업 도입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진도 민속 예술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3.6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과 교통망 확충,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이다. 군의원 3선과 도의원을 거머쥔 지역 기반에 중앙 정치권과의 연계를 더해 정책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각 후보는 육군 장군 출신으로 충북지방병무청장을 지낸 경력을 앞세워 중앙 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 감소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J

-르네상스'를 비전으로 내걸었다. 예산 확대와 산업 유치, 광주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기반과 의정 경험을 앞세운 김 후보와 중앙 행정 경험을 강조하는 이 후보 간 대비가 뚜렷해지면서, 경선 과정 자체가 본선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조인현 조국혁신당 진도군협의회 회장까지 가세할 경우 선거는 다자 구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표 분산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양자 대결로 정리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평가 관계자는 "강진과 진도 선거는 현직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선거를 뒤흔 수 없게 되면서 기존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며 "경선 경쟁력과 본선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를 유권자들이 판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김영록·이병훈 손잡았다...통합시장 경선 '원팀 구축'

#### 이병훈, 김영록 캠프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맡아 행시 선후배...광주·전남 기반 결합 시너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자치시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김영록 후보와 예비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이병훈 후보가 손을 잡았다. 본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캠프 통합을 통한 '원팀' 구성이 현실화되면서 경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김 후보와 함께 24일 광주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록 예비후보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그 길에 함께하겠다"며 "통합특별시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증된 행정력과 안정적 리더십, 갈등을 통합으로 바꿔낼 힘이 필요하다"며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인물이 김영록 후보"라고 밝혔다.

김영록 후보와 이 부위원장은 광주 서

석초·서중·광주일고 동문이자 행정고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최근 김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이 부위원장이 사용하던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정치권에서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앞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합류 배경에 대해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고 자리 욕심도 없다"며 "신정훈, 민형배, 강기정 후보 세 분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추가 단일화나 연대 시도 여부에 대해 김 후보는 "강기정 후보는 통합의 동반자이고, 신정훈 후보는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연대 의식이 있고, 주철현 후보도 함께 모시고 싶다"며 "다만 시점은 본경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자치시장 경선 후보에 나섰다 중도 사퇴한 이병훈 민주당 후보(왼쪽)가 김영록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 강성휘 "본선 이길 수 있는 후보 선택해야" 목포시 행정 신뢰도 회복 시급...“안정적·책임 있는 시장 전향”

"6·3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는 목포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시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민주당의 확실한 필승카드로 본선 승리를 이끌겠다."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사진)는 24일 "목포시는 박홍률 전 시장의 부인이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공백기'를 초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 목포시 행정 신뢰도는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ESG평가원의 지난해 전국 지자체 평가 결과를 보면 목포시는 C등급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220위를 기록했다. 전국 하위권, 호남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행정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심사 기준에 따른 업체 선정, 무자격자와



목포=이현규 기자 leek2123@

의 계약, 규정 위반 수의계약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총 65건에 대해 시장·주요 및 징계·훈계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청렴도 역시 한계를 드러내 지난해 중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지만,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는 5등급에 그쳐 대민 행정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 수당 지급 증빙 부족, 근무명령 공백 등 논란 등이 제기되며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가 불거졌다.

강 예비후보는 "문제는 결국 시장 공백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이제는 과거의 불안과 혼선을 끊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익 함평군수, 3선 도전 선언...“합평 대도약 완성”

#### “위기 땀 결단력·리더십 필요”...공약이행률 95.1% 성과 강조

이상익 함평군수(사진)가 오는 6·3일 지방선거에 함평군수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상익 군수는 24일 함평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데 이어 이날 오전 11시 함평전지전통시장 소상공인 교육관에서 '합평을 강하게! 군민을 신나게!'라는 슬로건으로 선언행사를 갖고 "전남·광주 통합으로 급변하는 지방시대에 함평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만들고 계몽을 찾아오는 일, 이상익이 해내고

자 또 한 번 도전에 나섰다"고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우리는 자주 위기를 겪고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 군민을 보호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강한 결단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합평은 지속 발전을 해야 하고,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되는 만큼 계몽을 다 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군수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민선 7·8기 군정이 추진해온 성과에 대하여 함평 대도약 1대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비전과 7개 분야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비전으로는 △초광역 미래차 산업 거점 완성 △합평농어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햇빛 소득사업을 통한 함평형 기본소득 추진 △인구소멸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미래 비전을 위한 인재 육성 △전국 최고 수준의 돌봄 공동체 육성 △행정통합 특별지원 효과 극대화 등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선8기를 되돌아보면 "공약이행률 95.1%라는 성과를 이뤘

다"면서 "군정을 운영하면서 투명한 인사와 공정한 계약관리로 청렴한 군수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가장 자부심을 갖는 성과는 전남도지사사와 함께 지난 23년 9월에 발표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이라고 들고 "6대분야 17개 사업에 1조 8000억원 규모로 서남권 중추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을 착수해 2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정치신인에게 군정을 맡겨 허송세월하기 보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군수를 뽑아야 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양시 전직 시·도의원 9명 박성현 지지 선언

#### “광양의 새도약 위한 선택”

광양지역 전직 전남도위원과 광양시의원 9명이 박성현 시장 예비후보(사진) 지지 선언했다.

서욱기 전 전남도회의회장, 서정복·남기호·김성희 전 광양시의회 의장, 신홍섭 전 전남도의원, 정경환·박말래·심상기·정민기 전 광양시의원 등 9명은 24일 중마동 박성현 시장 예비후보 사무실(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성현 시장 후보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지금 광양에 필요한 것은 관리형 행정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산업, 향판, 에너지, 미래첨단산업을 연결해 광양의 새로운 30년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박성현"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광양에 필요한 것은 '한번 더'가 아니라 '바꾸자' 라며 "우리는 경제전문가로서 현장을 누비며 성과를 만들어온 박 예비후보가 광양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책임자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 결과로 증명해 온 사람이며 공기업의 CEO로 예상을 확보하고 조직을 혁신하며 미래 먹거리를 설계해 본 경험이 있다"며 "정체 반복 대신 변화와 도약을 선택한다"며 박 예비후보를 지지했다.